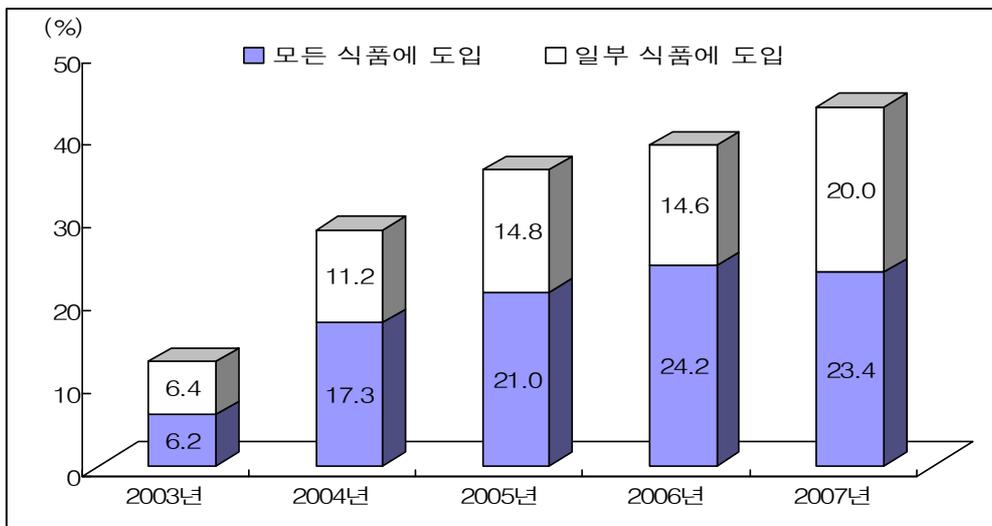


## 일본 식품소매점의 이력추적제 도입 실태(2007년도)

### ■ 식품소매업의 이력추적제 도입 증가세

-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7년도에 실시한 식품소매업의 이력추적제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
- 2008년 1월 1일 현재 일본 내에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식품소매점은 '모든 식품에 도입하고 있다'가 20.0%, '일부 식품에 도입하고 있다'가 23.4%로,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 - 이력추적시스템에 IT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(복수응답)은 '이력추적시스템에 만 이용'이 1.1%, '다른 용도에도 이용'이 15.2%로, 합계 16.3%를 차지하였음

【 식품소매업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현황 】



### ■ 이력추적제의 생산분야 소급적용 가능성 높게 평가

- 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, 수입업자 등에게까지 이력추적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'모든 식품에서 소급 가능'이라고 답한 업체는 31.6%, '일부 식품에 소급 가능'은 40.3%로, 전체 71.9%의 기업이 생산자 등에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  - 신선식품(40개 품목) 및 가공식품(저차가공품 10개 품목)별 소급 가능성에 대해

살펴보면 70% 이상의 기업에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식품은 7개 품목(신선식품 2개 품목, 가공식품 5개 품목), 60~70%가 8개 품목(신선식품 3개 품목, 가공식품 5개 품목), 50~60%가 35개 품목(신선식품 35개)인 것으로 조사됨

### 【 품목별 생산자 소급 가능성 조사 결과 】

소급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 비중	신선식품	가공식품
70% 이상	맵쌀, 계란	녹차, 곤약, 우매보시, 기미, 구운김
60~70%	딸기, 닭고기, 돼지고기	장어구이, 염장연어, 전갱이건제품, 뱀어포, 대구알
50~60%	양배추, 시금치, 상추, 파, 브로컬리, 무, 당근, 양파, 감자, 토마토, 가지, 오이, 표고버섯, 팽나무버섯, 만가닥버섯, 메론, 밀감, 사과, 바나나, 배, 다랑어류, 가다랑어, 연어·송어류, 전갱이류, 고등어류, 꽁치, 방어류, 가자미류, 참돔, 새우류, 바지락, 가리비, 굴, 오징어류, 문어류	-

#### ■ 로트 정보전달,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

- 로트(Lot)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단위(복수응답)는 '일자단위'가 67.6%, '개별품목단위(일괄포장 소매단위)'가 46.1%로 전년대비 각각 4.7 포인트, 1.7 포인트 증가하였음
  - '구매형태 단위(파레트, 골판지 등)' 33.9%, '구매시 기재된 로트번호 단위'가 14.2%로 전년대비 각각 4.7 포인트, 5.3 포인트 감소하였음
- 구매처에서 로트번호를 전달하는 방법(복수응답)은 '라벨 등에 로트번호를 표시' 34.3%, '바코드' 31.9%로 전년대비 각각 0.3, 1.6 포인트 증가하였음
  - 또한 '상품에 직접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(거래전표 등에 의해 별도로 전해짐)'가 39.9%로, 전년대비 6.7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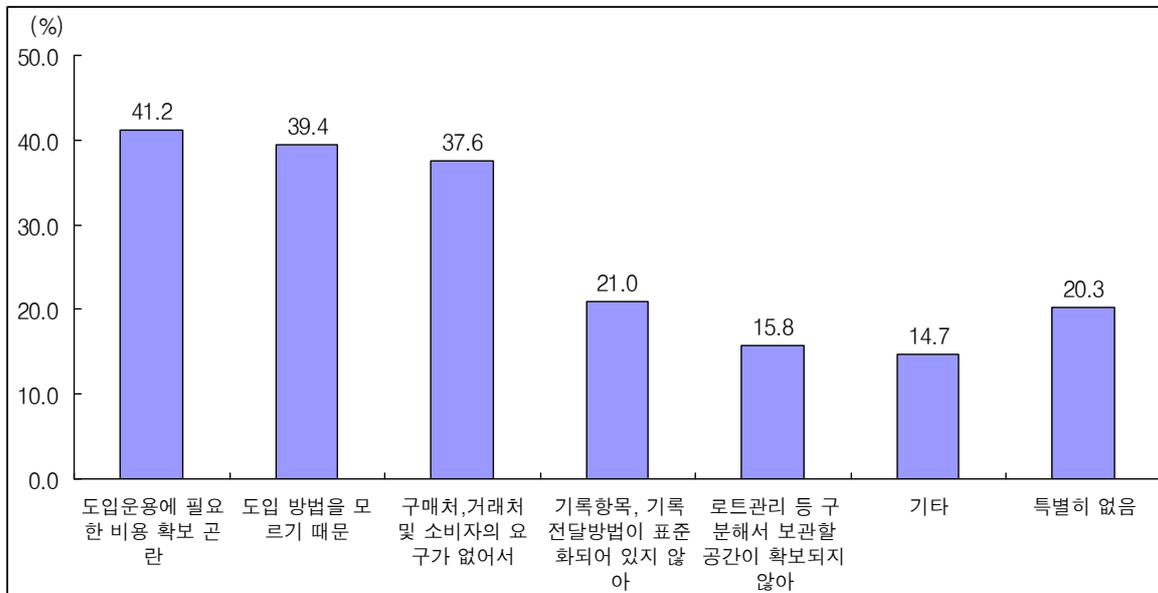
#### ■ 이력추적제 도입, 비용 및 방법상의 개선 필요

- 한편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(복수응답)에 대해 조사한 결과 '도입·운용을 위한 비용(기기, 인원 등)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'이 41.2%로 가장 높았고,

다음으로 '도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'이 39.4%, '구입처, 거래처 및 소비자의 요구가 없기 때문'이 37.6%임

- 또한 이력추적시스템을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까지 소급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'자사에서 정보(구매처 등에 문의하기 위한 기록을 포함)를 기록·보관하고 있지 않다'가 47.4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구매처(유통업자)가 생산자 등을 소급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·보관하고 있지 않다'가 40.3%로 나타났다
- 이상 일본 식품소매업체에 있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, 이력추적제의 도입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 여전히 비용 및 방법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제도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음

### 【 식품소매업에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】



<임경희, [imkh@kmi.re.kr](mailto:imkh@kmi.re.kr)>